

# 여자대학생의 우울 증상과 그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검토

신은숙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Depressive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Eun-Sook Shin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울에 비교적 민감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실태를 알아보고 그의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C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 23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9월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우울 수준을 종속변수로, 일반적 특성,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우울 수준과 각 변수를 오즈비로 검토한 결과, 우울 증상은 가정의 경제 상태(OR=2.64, 95% CI 1.27-5.36,  $p=0.017$ ),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도(OR=2.48, 95% CI 1.35-4.79,  $p=0.008$ ), 통제 신념(OR=3.89, 95% CI 1.82-7.67,  $p<0.001$ ), 사회적지지(OR=2.74, 95% CI 1.56-5.99,  $p<0.001$ ) 및 스트레스(OR=2.52, 95% CI 1.36-5.29,  $p<0.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오즈비가 가장 높았던 변수는 통제 신념이었다. 따라서 우울에 비교적 민감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증상에 예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제 신념을 비롯한 관련 요인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depression by examining the depression statu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nd reviewing the related factors.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been evaluated to be relatively more susceptible to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2 female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C university in a local city.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September 2023. The data was analyzed using univariate analysis,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epression level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locus of control,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e, social support, stress, and fatigue as in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levels and each independent variable were reviewed as odds ratio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OR=2.64, 95% CI 1.27-5.36,  $p=0.017$ ),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OR=2.48, 95% CI 1.35-4.79,  $p=0.008$ ), locus of control (OR=3.89, 95% CI 1.82-7.67,  $p<0.001$ ), social support (OR=2.74, 95% CI 1.56-5.99,  $p<0.001$ ) and stress (OR=2.52, 95% CI 1.36-5.29,  $p<0.001$ ). Locus of control was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odds ratio. Thu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keeping in mind the related factors, especially locus of control, that can proactively ac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evaluated as a group relatively sensitive to depression.

**Keywords** : Female College Student, Depressive Symptom, Locus of Control,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e, Social Support, Stress, Fatigue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Shin(Joongbu University)

email: tjdrhd@joongbu.ac.kr

Received February 6, 2024

Accepted April 5, 2024

Revised February 26,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우울 상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신발달 문제로 사회현상 화 되고 있으며, 그 호소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1,2].

우울은 심신을 약화시키는 질환 중의 하나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즐거움이나 흥미로운 관심이 줄어들고 우울한 기분이나 슬픈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다[3]. 우울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 또한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 발생의 결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4,5].

이 같은 우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및 대인 의존 행동 특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와 같은 외적 통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6-8].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통제 신념( locus of control)은 내적 통제 신념과 외적 통제 신념으로 나눈다. 내적 통제 신념은 어떤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이고, 외적 통제 신념은 어떤 사건의 발생은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게 됨을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내적 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9], 외적 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10,11]. 따라서 통제 신념은 스트레스 등에 의해 나타나는 우울의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자기 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건강 상태, 적응 능력, 인지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부정적인 행위나 결과를 완화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4,15]. 따라서 자기 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건강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16-18], 우울에 민감한 여자대학생들의 우울과 자기 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강조된다.

대인 의존 행동 특성(interpersonal dependency)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정서적인 의존심이 강하다[14].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의 문제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고립 및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됨은 물론[19],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0,21]. 청소년의 시기 또한 동료와의 친밀감 형성 및 애착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원만한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5,22,23].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를 말한다[24]. 사회적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25]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26,27],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기여 인자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7,18].

스트레스(Stress)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적 적응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방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28],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영향은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의 차이 및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며,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29].

피로(fatigue symptom)는 건강 영향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부정적인 요인에 선행되어 나타나게 되며[30,31], 학생의 경우 피로의 증가는 학업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을 초래하여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게 된다[4,5].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로 수준이 정상인 군보다 고위험 피로 군에서 우울 군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3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로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같이 우울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피로와 같은 외적 통제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학교생활 특성 등 단편적인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요인들과의 중 다변적인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3-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비교적 민감하다고 보고된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심리적 요인(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외적 통제 요인(사회적지지, 스트레스, 피로)과의

중 다변적인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한 지방 도시의 C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G\*Power 3.1.9 프로그램[36]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0.15, 통계적 검정력 0.8, 예측 변수 18개를 기준으로 회귀 분석을 선택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17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무효 응답을 제외한 232명(회수율 92.8%)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2 자료수집 및 윤리적 배려

자료수집은 2023년 9월에 연구자가 조사 대상 대학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 요령을 설명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조사 중 설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불참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설문 내용의 개인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 2.3 측정 항목

#### 2.3.1 일반적 특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무, 음주 상태, 규칙적 식사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가족과의 동거 여부,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의 만족도,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2.3.2 통제 신념 (locus of control)

통제 신념의 측정은 Levenson[37]의 축소형 통제 신념 척도(SFLOC: 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SFLOC는 전체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0-1-2-3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범위: 0~21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 신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26이었다.

#### 2.3.3 자기 존중감 (self-esteem)

자기 존중감의 측정은 Rosenberg[38]의 자기 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만든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긍정 문항은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와 「그렇게 생각한다」에 1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0점을 주며, 부정 문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와 「그렇게 생각한다」에 0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범위: 0~10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784이었다.

#### 2.3.4 대인 의존 행동 특성 (interpersonal dependency)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의 측정은 Hirschfeld[39]가 개발하고 McDonald-Scott[40]에 의해 수정 보완된 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서 독립행동에 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및 「약간 그렇다」에 0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의존 행동에 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1점, 「약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범위: 0~18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02이었다.

#### 2.3.5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MOS-SSS: 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41]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MOS-SSS는 대상자가 현재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부터 「항상 있다」까지 Likert 5점(1-2-3-4-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19~95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25이었다.

### 2.3.6 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의 측정은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42]를 기초로 재구성한 한국어판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43]. PWI는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 4점(0-1-2-3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0~54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총점이 8점 이하인 군을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769이었다.

### 2.3.7 피로 (fatigue symptom)

피로의 측정은 FAI: Fatigue Assessment Inventory[30]를 기초로 재구성한 한국어판 다차원피로척도(MFS: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를 사용하였다[43]. MFS는 전체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1-2-3-4-5-6-7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19~133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증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743이었다.

### 2.3.8 우울 (depression)

우울의 측정은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44]을 변안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CES-D는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 문항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0-1-2-3점을, 긍정 문항은 3-2-1-0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범위: 0~60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의 경우를 「우울 상태」로 판정하고 있다[44].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35이었다.

## 2.4 분석 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에 따른 우울(CES-D)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chi^2$ -test로 검증하였다.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와 우울

(CES-D)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우울 증상과 각종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울(CES-D) 점수를 16점 이상과 16점 미만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오즈비(OR)와 95% 신뢰 구간(95% CI)을 구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ver 26.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조사 대상자에 대한 양적 변수의 분포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점수의 중앙값은 17.0점이었으며, 평균값은 18.4점, 표준편차는  $\pm 8.0$ 점이었다. 통제 신념(LOC) 점수의 평균값은 51.6점, 표준편차는  $\pm 6.2$ 점이었고, 자기 존중감(Self-esteem) 점수의 평균값은 8.2점, 표준편차는  $\pm 2.2$ 점이었으며, 대인 의존 행동 특성(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점수의 평균값은 9.3점, 표준편차는  $\pm 3.0$ 점이었다. 사회적 지지(MOS-SSS) 점수의 평균값은 68.5점, 표준편차는  $\pm 11.5$ 점이었고, 스트레스(PWI) 점수의 평균값은 25.3점, 표준편차는  $\pm 5.4$ 점이었으며, 피로(MFS) 점수의 평균값은 78.4점, 표준편차는  $\pm 19.6$ 점이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among study subjects

Variable	Med	Avg	S.D.	Min	Max
Depression <sup>a</sup>	17.0	18.4	8.0	2	43
Locus of control <sup>b</sup>	49.0	51.6	6.2	24	68
Self-esteem <sup>c</sup>	9.0	8.2	2.2	0	14
Interpersonal dependency <sup>d</sup>	9.0	9.3	3.0	0	21
Social support <sup>e</sup>	69.0	68.5	11.5	31	98
Stress <sup>f</sup>	24.0	25.3	5.4	4	46
Fatigue symptom <sup>g</sup>	79.0	78.4	19.6	58	108

<sup>a</sup>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up>b</sup> 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 (SFLOC)

<sup>c</sup> Self-esteem Scale

<sup>d</sup> 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sup>e</sup> 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S)

<sup>f</sup>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sup>g</sup>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 3.2 일반적 특성별 우울(CES-D) 수준

조사 대상자의 CES-D 점수를 16점 이상과 16점 이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6점 이상은 전체 조사 대상자 232명 중 84명으로 36.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CES-D 점수의 분포를 보면, CES-D 16점 이상은 연령이 20세 이상보다 19세 이하에서( $p < 0.001$ ),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보다 받는

는 군에서( $p < 0.001$ ),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p = 0.025$ ),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p < 0.001$ )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관련 변수별 우울(CES-D) 수준

관련 변수별 CES-D 점수의 분포를 보면, CES-D 16

Table 2. Distribution of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Depression(CES-D score)		$\chi^2$	p-value	
		<16 n(%)	≥16 n(%)			
Age(year)	<19	93	53(57.0)	40(43.0)	9.482	<0.001
	≥20	139	95(68.4)	44(31.6)		
Stress for body shape	Non	118	85(72.0)	33(28.0)	14.276	<0.001
	Stressful	114	63(55.3)	51(44.7)		
Alcohol drinking	Yes	46	29(63.0)	17(37.0)	0.748	0.576
	No	186	118(63.4)	68(36.6)		
Eating habit	Regularly	114	73(64.1)	41(35.9)	0.579	0.842
	Irregularly	118	75(63.6)	43(36.4)		
Regular exercise	Regularly	74	48(64.9)	26(35.1)	0.621	0.664
	Irregularly	158	100(63.3)	58(36.7)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121	79(65.3)	42(34.7)	0.715	0.535
	Bad	111	69(62.2)	42(37.8)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09	71(65.1)	38(34.9)	0.720	0.528
	Others	123	77(62.6)	46(37.4)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Good	139	94(67.6)	45(32.4)	10.264	0.025
	Bad	93	54(58.0)	39(42.0)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172	116(67.4)	56(32.6)	13.356	<0.001
	Dissatisfied	60	32(53.3)	28(46.7)		
Academic achievement	High	42	28(66.7)	14(33.3)	0.342	1.058
	Low	190	120(63.2)	70(36.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69	110(65.1)	59(34.9)	1.359	0.587
	Dissatisfied	63	38(60.3)	25(39.7)		
Total	232	148(63.8)	84(36.2)			

Table 3. Distribution of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Depression(CES-D score)		$\chi^2$	p-value	
		<16	≥16			
Locus of control	Low group	142	85(59.9)	57(40.1)	5.206	<0.001
	High group	90	63(70.0)	27(30.0)		
Self-esteem	Low group	139	83(59.7)	56(40.3)	4.957	<0.001
	High group	93	65(69.9)	28(30.1)		
Interpersonal dependency	Low group	130	85(65.4)	45(34.6)	0.354	0.624
	High group	102	63(61.8)	39(38.2)		
Social support	Low group	120	65(54.2)	55(45.8)	18.243	<0.001
	High group	112	83(74.1)	29(25.9)		
Stress	Healthy group	26	19(73.1)	7(26.9)	12.357	<0.001
	Latent stress group	137	92(67.2)	45(32.8)		
	High risk stress group	69	37(53.6)	32(30.0)		
Fatigue symptom	Low group	181	116(64.1)	65(35.9)	0.658	0.242
	High group	51	32(62.7)	19(37.3)		
Total	232	148(63.8)	84(36.2)			

점 이상은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 $p<0.001$ ),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 $p<0.001$ ),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 $p<0.001$ ), 스트레스가 건강 군보다 잠재적 스트레스 군과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p<0.001$ )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 3.4 우울(CES-D) 수준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우울(CES-D) 수준과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CES-D) 수준은 통제 신념( $r=-0.402$ ,  $p<0.01$ ), 자기 존중감( $r=-0.224$ ,  $p<0.05$ ) 및 사회적지지( $r=-0.497$ ,  $p<0.01$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r=0.506$ ,  $p<0.01$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related factors regarding depression levels

Variable	Depressio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Social support	Stress
Locus of control	-0.402**					
Self-esteem	-0.224*	0.258*				
Interpersonal dependency	0.124	-0.067	-0.042			
Social support	-0.497**	0.343**	0.347**	0.184*		
Stress	0.506**	-0.396**	-0.401**	0.114	-0.522**	
Fatigue symptom	0.102	-0.105	-0.089	0.122	-0.219*	0.165*

\* :  $p<0.05$ , \*\* :  $p<0.01$

Table 5. Odds ratios(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Variable	ORs	(95% CI)	p-value
Age(year)	$\geq 20$	1.00	
	$<19$	1.46	(0.68-3.82)
Stress for body shape	Non	1.00	
	Stressful	1.65	(0.72-4.01)
Alcohol drinking	Yes	1.00	
	No	1.16	(0.54-2.53)
Eating habit	Regularly	1.00	
	Irregularly	1.26	(0.65-2.94)
Regular exercise	Regularly	1.00	
	Irregularly	1.46	(0.72-2.78)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1.00	
	Bad	1.61	(0.75-3.89)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00	
	Others	1.52	(0.83-3.26)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Good	1.00	
	Bad	2.64	(1.27-5.35)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1.00	
	Dissatisfied	2.48	(1.35-4.79)
Academic achievement	High	1.00	
	Low	1.26	(0.55-2.9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00	
	Dissatisfied	1.45	(0.73-2.87)
Locus of control	Highgroup	1.00	
	Low group	3.89	(1.82-7.67)
Self-esteem	High group	1.00	
	Low group	1.49	(0.58-3.02)
Interpersonal dependency	Low group	1.00	
	High group	1.35	(0.67-2.83)
Social support	Low group	1.00	
	High group	2.74	(1.56-5.99)
Stress	Healthy group	1.00	
	Latent stress group	2.52	(1.36-5.29)
	High risk stress group	3.27	(1.85-7.13)
Fatigue symptom	Low group	1.00	
	High group	1.32	(0.68-3.15)

한편, 통제 신념은 자기 존중감( $r=0.258, p<0.05$ ) 및 사회적지지( $r=0.343,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r=-0.396, p<0.01$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 존중감은 사회적지지( $r=0.347,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r=-0.401, p<0.01$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은 사회적지지( $r=0.184, p<0.05$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r=-0.522, p<0.01$ ) 및 피로( $r=-0.219, p<0.05$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는 피로( $r=0.165, p<0.05$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 3.5 우울(CES-D) 수준에 관련된 요인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CES-D 점수를 16점 미만과 16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는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2.64배 유의하게 높았으며( $OR=2.64, 95\% CI 1.27-5.36, p=0.017$ ),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2.48배 유의하게 높았다( $OR=2.48, 95\% CI 1.35-4.79, p=0.008$ ). 한편,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는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3.89배 유의하게 높았으며( $OR=3.89, 95\% CI 1.82-7.67, p<0.001$ ),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2.74배 유의하게 높았고( $OR=2.74, 95\% CI 1.56-5.99, p<0.001$ ), 스트레스가 건강 군보다 잠재적 스트레스 군에서 2.52배( $OR=2.52, 95\% CI 1.36-5.29, p<0.001$ ),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3.27배 유의하게 높았다( $OR=3.27, 95\% CI 1.85-7.13, p<0.001$ )(Table 5).

## 4. 고찰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C 대학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울에 관련된 현상에서 특별한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여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각종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의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증 스크리닝으로 CES-D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cut-off 값을 16점으로 했을 경우 임상 진단으로는 특이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45,4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진단이 아니라 인구집단을 기본으로 우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요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cut-off 값을 개발자가 권장하고 있는 16점으로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47].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CES-D 점수의 평균은 18.4점이었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Rosal 등[48]은 14.5점,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Takakura와 Sakihara[49]는 16.3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wata와 Buka[50]는 17.2점,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bayashi 등[47]은 19.9점으로 보고하고 있어 국가마다 조사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CES-D가 16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6.2%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Roberts 등[46]은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39.3%, Kobayashi 등[47]은 여자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60.1%로 보고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CES-D가 16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20세 이상 군보다 19세 이하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보다 받는다는 군에서,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bayashi 등[47]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령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CES-D 점수가 높은 경향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 등[4]도 우울 군의 분포는 연령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우울 군의 분포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보다 받는다는 군에서 높다고 하였고[8],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51-53]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CES-D 16점 이상의 분포는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 요인에 따른 CES-D 16점 이상의 분포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가 고위험 스트레스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은미는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Lee 등[51]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e 등[5]과 Bae 등[53]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고, Shin 등[52]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낮은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CES-D)과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CES-D)은 통제 신념(LOC), 자기 존중감 및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Kobayashi 등[47]은 일본의 여자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CES-D와 통제 신념(LOC)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Takakura와 Sakiharal[49]는 사춘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ES-D와 통제 신념(LOC)은 유의한 상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i 등[4]은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Lee 등[51]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 등[53]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Shin 등[52]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통제 신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즈비가 가장 높았던 변수는 통제 신념이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여자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개인의 속성으로 가정의 경제 상태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인정되었으나 조사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검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요인 및 외적 통제 요인과 우울(CES-D)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ark 등[8]은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가 정상인 군보다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우울이 나타날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Bae 등[53]은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우울이 나타날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obayashi 등[47]은 일본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 신념(LOC)은 CES-D에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어 통제 신념(LOC)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한 지방 도시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여자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지만,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응답 편향(response bias)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하였던 여자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통제 신념 및 자기 존중감, 외적 통제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여자대학생의 우울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결론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수준은 연령, 가정의 경제 상태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통제 신념 및 자기 존중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 통제 요인과의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은 우울 지표인 CES-D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나타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여 우울 증상과 관련된 보다 보편성이 높은 요인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Reference

- [1] Asarnow, JR., Carson, GA., & Guthrie, D.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5, no. 1, pp. 361-366, 1987.
- [2] WHO.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 [3]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APA).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the Bereavement Exclusion.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
- [4] E. M. Ji, Y. C. Cho. The association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ith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96-3006,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996>
- [5] H. Y. Lee, Y. C. Cho. Validation of Casual Model for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xiety,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Hopelessness on Depression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 pp. 208-217,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08>
- [6] Mallett CA, Stoddard DP, Seck MM. Predicting juvenile delinquency: The nexus of childhood maltreatment,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vol. 19, no. 4, pp. 235-246, 2009.  
DOI: <https://doi.org/10.1002/cbm.737>
- [7] S. J. Lee, S. Y. An, A Study of Effect that Self-Esteem and Depression have on Disability Acceptance of People with an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Disability & Employment*, vol. 21, no. 3, pp. 239-266, 2011.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1.21.3.010>
- [8] E. S. Park, Y. C. Cho. Depression symptoms level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219-230,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6.219>
- [9] Kirkcaldy BD, Cooper CL, Furnham A, Brown JL. Personality,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among public sector (police) managers. Special Issue: The validity and utility of personality assessment in occupational psychology. *Eur Rev Appl Psychol*, vol. 43, pp. 241-248, 1993.
- [10] Lester D, Tarnacki PA. Frequencies of dreams and daydreams and locus of control. *Percept Motor Skills*, vol. 69, pp. 954, 1989.
- [11] Sidrow NE, Lester D. Locus of control and suicidal ideation. *Percept Motor Skills*, vol. 67, pp. 576, 1988.  
DOI: <https://doi.org/10.2466/pms.1988.67.2.576>
- [12] Cummins R. The second approximation to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3, pp. 307-334, 1998.
- [13] Cohen S, Edwards J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isorder, In R.W.J. Neufeld(Eds.). *Advances in the Investigation of Psychological Stress*, New York : Wiley, pp. 234-283, 1989.
- [14] Hirschfeld RMA, Klerman GL, Gough HG, et al.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 Pers Assess*, vol. 41, no. 6, pp. 610-618, 1977.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ipa4106\\_6](https://doi.org/10.1207/s15327752ipa4106_6)
- [15] Ilya Yaroslavsky, Jeremy WP, Peter M et al. Heterogeneous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t predictors and adult outcomes. *J Affect Disord*. vol. 148, pp. 391-399, 2013.  
DOI: <https://doi.org/10.1016/j.jad.2012.06.028>
- [16] N. E. Kim.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college freshme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40, no. 4, pp. 5-26, 2012.
- [17] H. O. Sim. Attributional style and mediato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4, pp. 63-74, 1996.
- [18] G. S. Kim, Y. S. Jeon, C. W. Le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Adolescent Depression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vol. 17, no. 1, pp. 209-224, 2009.
- [19] Horowitz LM, Rosenberg SE, Baer BA, Ureno G, Villasenor VS.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885-892, 1988.
- [20] Zakahi WR, Duran RL, All the lonely people: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anxiety. *Communication Quarterly*, 30(3):203-209, 1982.
- [21] S. J. Lee,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2):229-248, 2009.
- [22] Y. S. Song, I. S. Kwon, Y. C. Cho. Psychosocial Factor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People in a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8, pp. 3521-3531,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8.3521>
- [23] Y. S. Lee, K. H. Kim, Y. C. Cho.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Factors with Single-child High School Students in an Urban City of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39, no. 5, pp. 419-426, 2006.
- [24] Shimada, Y. Psychological Stress and Social Support. *Stress Science*. vol. 16, pp. 40-50, 2001.
- [25] D'Zurilla TJ, Chang EC, Sanna LJ. Self-esteem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J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2, no. 4, pp. 424-440, 2003.  
DOI: <https://doi.org/10.1521/jscp.22.4.424.22897>
- [26] J. Y. Han, K.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 Shameand Cognitive Coping Strategie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8, no. 9, pp. 169-188, 2011.
- [27] S. H. Kang, E. S. Moon, N. Y. Cha.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Boy and Gir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77-293, 2011.
- [28] Selye H. Annual Report of Stress 1951-1956. New York : McGraw-Hill. 1958.
- [29] Sheldon C, Denise JD, Gregory EM. Psychological stress and disease. JAMA. vol. 298, no. 14, pp. 1685-1688, 2007.
- [30] Schwartz JE, Jandorf L, Krupp LB.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 Psychosom Res, vol. 37, no. 7, pp. 753-762, 1993.  
DOI:[http://dx.doi.org/10.1016/0022-3999\(93\)90104-N](http://dx.doi.org/10.1016/0022-3999(93)90104-N)
- [31] Motowidlo, SJ, Manning M, Packard, J. S. Occupational stres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for job performance. J Appl Psychol, vol. 71, no. 4, pp. 618-629. 1986.
- [32] K. S. Lee, J. S. Kang, I. S. Kwon, Y. C. Cho. Influences of Sleep Quality, Occupational Stress and Fatigue on Depression Among Small Scaled Manufacturing Mal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5 pp. 2230-2240,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5.2230>
- [33] S. O. Park, J. I. Kwon. Irrational beliefs and depressed youth. Journal of Student Life Research, vol. 3, pp. 73-87, 2000.
- [34] S. J. Kim.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l being,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35] J. Y. Hong. How the university students' stress affects their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36]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science. Behav Res Methods, vol. 9, no. 2,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37] Levenson H.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 Cons Clin Psychol vol. 41, pp. 397-404, 1973.
- [3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39] Hirschfeld RMA.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1, pp. 129-133, 1977.
- [40] McDonald-Scott. The 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Japanese Short Form: development and evaluation. Kango Kenkyu. vol. 21, no. 5, pp. 451-60, 1988.
- [41] Sherbourne D, Stewart AL.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 Sci Med, vol. 32, no. 6, pp. 705-714, 1991.
- [42] Goldberg DP.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England: NFER publish, 1978.
- [43] S. J. Chang, Standardization of collec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statistics data,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p. 144-181, 2000.
- [44] Radloff, L.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 Measure, vol. 1, pp. 385-401, 1997.
- [45] Dierker LC, Albano AM, Clarke GN, et al. Screening for anxiety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vol. 40, pp. 929-936, 2001.
- [46] Roberts RE, Andrews JA, Lewinsoh PM, et al. Assessment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us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sychol Assess vol. 2, pp. 122-128, 1990.
- [47] Kobayashi K, Kobayashi R, Kubo S, Sonoda T, et 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ome relevant factors investigations at a junior college in Hokkaido Japan. Japanese Journal of Public Halth, vol. 52, no. 1, pp. 55-65, 2005.
- [48] Rosal MC, Ockene IS, Ockene JK, et al. A longitudinal study of students' depression at one medical school. Acad Med vol. 72, pp. 542-546, 1997.
- [49] Takakura M, Sakihara S.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J Adolesc Health vol. 28, pp. 82-89, 2001.
- [50] Iwata N, Buka S. Race /ethnic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cross-cultural/ethnic comparis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ast Asia, North and South America. Soc Sci Med vol. 55, pp. 2243-2252, 2002.
- [51] M. J. Lee, Y. C. Cho. Self-Perceived Psychosocial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828-283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828>
- [52] E. S. Shin, H. K. Kim, Y. C. Cho.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n Urban A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0, pp. 4970-497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0.4970>
- [53] J. S. Bae, J. H. Choi.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2, pp. 547-557,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54>

신 은 속(Eun-Sook Shin)

[정회원]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행정, 병원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